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업 중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글말특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지루하지 않고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병행하며 글을 써 보는 연습을 처음 했을 때는 글을 쓰는 것이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비언어적 표현, 대화방식, 문장력 기르는 방법 등 글말특강의 여러 수업을 들으며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만의 표현 방식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표현 방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글은 자신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문장을 정립해서 쓰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목표인 논문 작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글말교실을 들으며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치며 글을 어느 정도 쓴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을 우리가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글을 쓰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글을 씀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목표에 대해 배웠습니다. 글은 우리의 생각을 가장 쉽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소통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배우며 소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자신감도 채울 수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글을 평균 정도로만 쓴다고 생각했던 저는 글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말특강 수업을 듣고 글쓰기 강의도 같이 들으며 글쓰기를 직접 하니 나날이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글쓰기의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으며, 글을 막힘없이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제 잡을 때에도 자신이 잘 알고 관심 있는 주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관심 분야로 선택해 더욱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글이 더 매끄럽고 글을 쓰는 도중 실수했던 오류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글말특강 수업 때 고쳐쓰기나 맞춤법도 배워 글을 작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제를 잘 아는 지인들에게도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봐달라고 부탁해 글의 구조를 다시 세우거나 탈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말 특강 수업은 글쓰기가 재미있어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글을 쓸 때만 해도 글을 재미없고 해야만 해서 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더욱 전달이 잘 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 하나를 고민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끝나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글을 탈고하는 과정에서 글의 전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도 했으나 그 덕에 더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표현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한 글쓰기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가 다가오면서 글쓰기 실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이고 쉬운 장치이기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글쓰기의 매력을 알고 실력을 키워 나간다면 앞으로의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